

보건안전 패러다임 전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 그리고 산업보건인 여러분,
희망찬 2024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에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보건안전 패러다임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건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고, 보건안전에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스마트화 속도는 빨라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안전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안전분야에서 일하는 우리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보건안전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시대적 과제를 산업보건인들과 함께 풀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규제형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 말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실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2023년에 펼쳐졌습니다. 2년 차인 2024년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 제도 안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적용 3년 차에 접어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도 높여야 합니다.

보건안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ESG경영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는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여기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 변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켜야 하고, 보건안전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안전분야의 스마트화는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보건안전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스마트화가 달라져 보건안전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보건안전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안전교육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험형 보건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올해 초 충북 오송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오송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오송 사옥에는 체험형 스마트 보건안전교육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쉽게 이해하는 체험형 보건안전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보건안전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많은 젊은 인재를 보건안전 전문가로 키워내, 이들이 산업재해 예방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사업주, 보건관리자 여러분,
정책과 기술의 변화에도 보건과 안전이 지향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4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 현 기

